

'전북예술로' 생태자원 예술적 가치 부각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 생태탐방원, '나비효과 프로젝트' 체험프로그램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전북예술로'에 참여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이 지난 23일 '나비효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6일 재단에 따르면 '나비효과 프로젝트'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변산반도의 생태와 문화에 '전북예술로' 예술인의 창의력이 함께 만들어진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안 뱃사람의 평안을 기원한 수성당의 개양할미, 천연기념물 123호인 후박나무 군락지와 그 진액을 먹고 자라는 청피제비나비를 비롯해서 적벽강, 채석강, 직소폭포, 내소사 등의 생태와 자연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거센 바람을 체감할 수 있는데, 바람을 막고자 생긴 죽막마을의 대나무와 거센 바람과 파도에 안경을 기원했던 수성당을 보여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전북예술로'에 참여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이 지난 23일 '나비효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 파견된 '전북예술로' 예술인은 소하, 강은경, 김효정, 박경재, 배수진으로 시각예술, 무용, 음악 장르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이들은 "변산반도의 거센 바람과 수성당의 기원의 의미로서 바다의 바람, 우리의 바람이 모여져 청피제비나비의 날갯짓처럼 나비효과가 돼 '전북예술로'의 활동이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나비효과 프로젝트'의 주제는 '바람의 빛깔', 부제는 '수성당의 개양할미, 청피제비나비'로, 오는 10월과 11월에도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 생태탐방원 1층 강당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예술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최하고 재단이 주관하는 사업

으로, 예술인들이 도내 기업·기관의 이슈를 예술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재단은 공모를 통해 국비 397백만원을 확보, 도내 160명의 예술인에게 예술기반 일자리를 통해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창작지원팀(063-230-7445)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안숙선 명창의 여정' 어린이 국악단,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 초청

남원시는 판소리 전통을 잇고 소리와 이야기로 판소리 역사를 배우는 '안숙선 명창의 여정' 어린이 국악단이 오는 28일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에 초청됐다고 밝혔다.

아직 3년이 채 되지 않은 어린이 국악단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으로 이뤄진 국악교실 수강생으로, 소리를 배우 판소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판소리의 고장 남원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으로 그동안 같이 뒹군 실력을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 청와대 대경원에서 멋지게 뽐낼 예정이다.

여정 김이나 관장은 판소리의 명창으로, 매주 화, 목 2회 국악단원에게 판소리의 멋과 소통을 통해 국악단원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전통문화 홍보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남원=김기주 기자



연극 '검정고무신'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10월 13일 진행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세 번째 이야기 연극 '검정고무신'이 10월 13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연극 '검정고무신'은 1960~70년대를 배경으로 고무신짜 하나 제대로 사 신을 수 없어 가난하고 힘들었던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구수한 사투리와 추억의 상황으로 풀어내며 가족이란 울타리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따뜻한 남매간의 사랑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내용으로 웃음과 감동이 있는 힐링 가족극이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김제시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여 지자체 지역주민들에게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해 시민들에게 한층 즐거운 공연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한다.

관람권 예매는 10월 4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구매가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한가위 특별 이벤트'

추석 연휴 선물 세트 증정 · 체험 행사 등 진행

전북도립미술관은 28일부터 10월 1일(추석 당일 휴관)까지 3일간 미술관 1층 프렌즈 리운지에서 미술관에 방문하는 관람객의 풍성한 한가위를 위해 전시 관람 외에 추석 연휴 중 즐길 수 있는 '한가위 특별 Event'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JMA FRIENDS 기존회원이나 신규회원에게 선착순 매일 100명씩 수제 다과 선물 세트를 증정하고, 전통공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체험 행사로 전통 문양 모빌 만들기 키트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선 전북도립미술관장은 "관람객들의 즐겁고 안전한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서 준비한 행사로 가족과 즐거운 관람과 체험을

함께 하면서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추석 당일인 29일과 대체 공휴일인 10월 2일 휴관하며 10월 3일 개천절은 정상 운영하니 방문 전 휴관일을 확인 후에 찾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미술관에서는 다양한 존재들의 개별성·관계성을 동시에 주목하는 작품들과 함께해 평등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특별전 '미안해요, 프랑켄슈타인'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전시는 11월 26일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JMA FRIENDS 회원가입 후 프랑켄슈타인의 3개의 도안 중 1개를 직접 선택하고 키링으로 꾸미는 상상 체험 '함께해요, 키링 키링'도 참여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ESG 경영 선포식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대한 공동 가치 공유 · 사회적 책임 · 가치 실현키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26일 공연장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 직원 대표로 유기준 공예산업팀 과장과 백지혜 한식문화팀 연구원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전 직원이 ESG 경영 실천 결의를 다졌다.

ESG 경영 선언문에는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적극 동참해 그린경영에 앞장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적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환경 및 친환경적인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 노력 △전통문화예술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전통문화예술을 통해 사회공헌 실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과 청렴한 가치를 바

탕으로 윤리경영을 지속적 실천 등의 내용이 담겼다.

26일 전당에 따르면 이번 ESG경영 선언문을 토대로 분야별 경영 방침 마련, ESG 경영지표 발굴, ESG 역량 강화 교육, ESG 경영지표 개선 우수사례 발굴 등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김도영 원장은 "ESG 경영 선언은 우리의 의지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며 "환경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효율적 지배구조를 구축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에서의 가을밤 추억 여행

제5회 남원 흥부제 통기타 라이브

출연진


국민MC 서정우


이태원


최형준


김민영


이창휘

10월 8일(일) 오후 8시 ~ 9시
남원 사랑의 광장 무대(남원시 어연동 37-19)

주최 : (사)전북문화진흥원
 주관 :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